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속도 낸다

중기부, 전남도 등 전국 특구 출범식
나주 일원...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獨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연구
“전주기 실증...글로벌 시장 선점”

전남지역에 조성하는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새로운 직류산업 미래를 향한 거대한 도약을 위해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특구 지자체인 전남도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부산시, 충북도, 특구 관련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산업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전남 에너지신산업 중압직류(MVDC) 실증 모형' 전시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부터 송배전, 전기차(EV) 충전스테이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대형 빌딩, 공장 및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 체계를 선보

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어 정책 컨퍼런스에선 지자체별로 특구 사업자 및 산학연 관계자에게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별 글로벌 동향, 법률, 기술,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토론회도 진행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공식 지정받았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나주 일원 12.1㎢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중압직류(MVDC) 스테이션을 활용한 다. 전력기자재 실증·인증을 통해 기술 개발과 표준을 만들어 직류산업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직류 배전망(35kV→5kV→1.5kV) 실증 기반(인프라) 구축과 규제 특례 기반으로 전력기자재 실증, 인증 획득, 해외 진출까지 연계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실증 및 해외인증은 미국 'UL Solution'과 협력하고, 해외 공동연구 개발(R&D)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박창환 부지사는 "전남은 일찍이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산업에 주목해 햇빛·바람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직류 전력기자재와 배전망 운용에 대한 전주기 실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로 세계 시장 점유율 10%, 세계 1등 제품 3개 선점, 유니콘 기업 1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존치 결정' 광주시청 앞 조형물 상징성 홍보

광주시가 시청 앞 시민광장에 설치된 이탈리아 작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 '기원' (사진)의 상징성과 가치를 널리 알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05년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작가 멘디니가 참여하고 삼성전자가 협찬해 설치된 작품 '기원'을 존치기로 하고, 외피를 '아지랑이'에서 '물방울' 무늬로 교체했다.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이며, '디자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작품 '기원'은 높이 16m의 초대형 모빌 작품으로, 빛의 도시 광주를 형상화한 7개의 모빌식 원형 오브제에 시민 개인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광주시는 이 작품이 갖는 상징성과 작고한 디자인에 거장의 '역작'이라는 가치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작품 '기원'과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글을 올리면 시청 1층 이룸카페의



각종 음료를 500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다.

광주시민의 날 행사(5월25일)를 맞아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연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품 '기원' 관련 사진이나 게시글을 올리면 '기원'의 4계절 무늬가 그려진 에코백을 선착순 증정한다. 에코백은 시청 1층 이룸카페 앞에서 받을 수 있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시청 1층 이룸카페 앞 작품 '기원'의 4계절을 담은 사진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 작품 '기원' 앞 안내판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시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협력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지난 20일 영상으로 개최해 현황을 공유하고, 기금사업 발굴 및 합동 홍보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선 도와 시군의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향후 기금사업 발굴 계획, 답례품 발굴 및 공급업체 검점, 홍보활동 중심의 도-시군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금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와 22개 시군이 공감하며, 지역 특색 및 지역 문제 등과 연계한 도내 기금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기금사업 발굴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무안군, 완도군이 기금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며, 아직 기금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11개 시군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답례품의 다양성과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답례품 다양화 및 공급업체 검점 등을 요청했다. 또 전국 유명 축제 및 고향사랑의 날 등에 도와 시군의 합동 홍보를 통해 전남 지역 기부금 모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시군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기금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도시공사, 광주역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역행복주택 잔여 세대에 대한 입주자(예비)를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잔여세대 72세대와 예비입주자 165세대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이고 광주역 행복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60~

80%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https://www.gmcc.co.kr>)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임대주택 콜센터(062-225-2280)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노병하 기자



광산구 상생 점심 여행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경제문화국 공직자들이 21일 광산구 신창동 골목상권에서 점심식사에 앞서 상권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번 상생 점심여행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상황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경기회복을 위해 전 공직자가 참여한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시·전남도,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총력

기재부에 AI실증·우주항공 등 건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지역 현안 국고 사업을 건의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 광주시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기획조정실장, 전남도는 박창환 정부부지사·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해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 담당 국장 등에게 주요 현안의 국고 반영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날 논의에서 인공지능 혁신 실증 빨리 조성 등 5가지 현안을 건의했다.

인공지능 혁신 실증 빨리 조성은 비수도권 최초로 구축한 인공지능(AI) 생태계 기반을 바탕으로 AI융합기술을 자유롭게 시험·검증하는 실증도시를 건립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도 국비 724억원을 요청했다.

또 △국립현대미술과 광주관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예산 12억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검증 기반시설 구축비 42억원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억원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미래 에너지·우주항공 산업 분야에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60억원·2025년 24억원)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450억원·2025년 20억원) △압축공기 저장기술 개발(410억원·2025년 81억원) △신 송전급 전력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미정·2025년 3억원) 등이다.

농림해양 산업 분야는 △국립 김산업진흥원·마른김 물류단지 조성(1000억원

·2025년 17억원)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개선(500억원·2025년 70억원)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5000억원·2025년 3억원) 등이다.

특히 지역 미래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강조하며 전국 유일 신개념 고속도로망인 영암-광주 초고속도로와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2단계 고속도로 예타 조기 통과 등을 요청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광양(IV) 공업용수도 공급사업(3024억원·2025년 5억원), 화순군 폐광 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5643억원·2025년 125억원), 국립 해양수산물관리권립(1441억원·2025년 55억원) 사업이 조기 통과돼 2025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병하·곽지혜 기자

광주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광주시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심리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안전교육과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배달플랫폼 요기요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온라인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을 제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촉박한 시간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와 점주와 관계에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비율이 높은 감정노동자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5200만원(배달플랫폼 요기요 예산 1200만원 포함)을 투입해 광주지역 배달노동자 200명을 대상으

로 안전교육과 심리상담을 6월부터 8차례 진행한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전문강사의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대처방법', 라이더유니온 광주·전남지부 라이더 강사의 '오토바이 정비와 실무노하우' 등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안전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광주시 내 배달노동자로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https://www.gbiz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